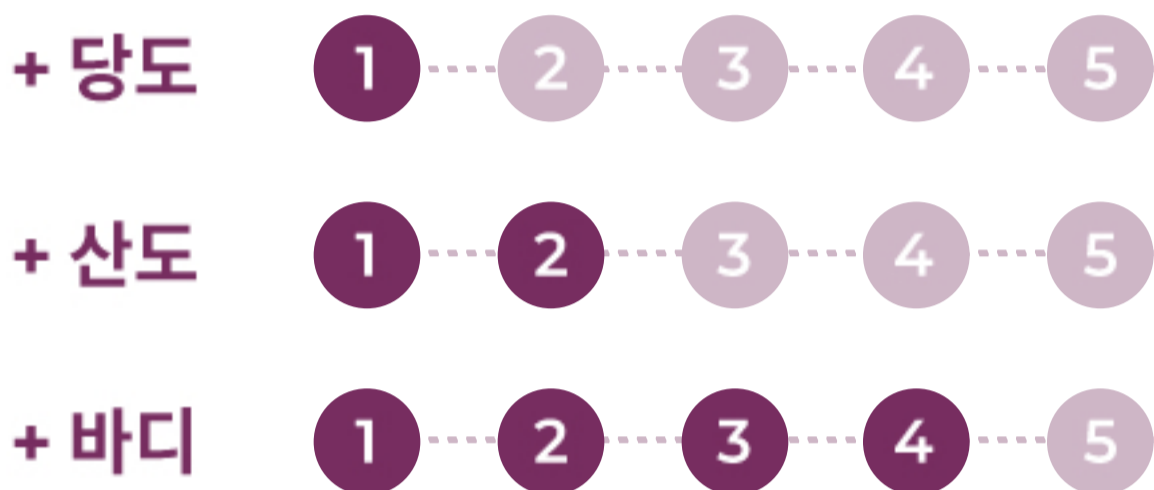




Vetas Blancas Syrah

베타스 블랑카스 시라

로버트 파커가 첫눈에 반한 와이너리,
따발리가 선보이는 리마리 벨리의
생동감 있는 와인



Point

- 로버트 파커, 따발리 와인을 마신 후 "첫눈에 반함" 이라고 표현
- 칠레 북부 리마리 벨리의 선구자, 따발리
- 베타스 블랑카스=스페인어로 '흰색 줄무늬'를 의미하며 석회암 토양이 주는 미네랄리티를 표현하고자 함

Type	레드 와인
Country / Winery	칠레 > 리마리 벨리 / 따발리
Grape Variety	쉬라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양갈비, 한우구이, 불고기 등 육류요리

Information

깊은 자주 색을 띠는 와인으로 이 잘 익은 와인은 우아하면서도 자신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. 여러 층의 아로마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블랙 체리, 검은 후추, 연기, 각종 향신료를 느낄 수 있다. 입 안에서는 균형감이 좋고 질감이 매우 부드러우며 과실 풍미가 잘 느껴진다. 리마리 벨리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와인이며 숙성 잠재력이 뛰어난 와인이다.

Awards

- Robert Parket : 90p (2018)
- James Suckling: 90p (2018)
- Descorchados : 90p (2018)